

청소년이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가간호역량간의 관계분석*

장 희 정** · 신 윤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함께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한 혼란과 복잡한 변화를 겪는다. 또한 이 시기는 내·외적 경험을 통합하고 성숙의 기초를 형성하며, 발달 특성이 변화무쌍하고 성취해야할 과제가 복잡한 시기이다(Kim, M. S., 1997).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균형 잡힌 발달을 해야 한 나라의 안녕과 복지 뿐 만 아니라 세계의 안녕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체, 정신, 사회적인 면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이 요구된다(Kim, M. S., 1997).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격한 사회변화와 첨단 과학 문명의 발달 및 학업위주의 학교교육, 치열한 입시경쟁 등으로 건강의 가치를 망각하거나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의 건강은 주로 정신, 사회, 심리적인 면에 치중한 나머지, 평생의 건강관리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인 건강습관이나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자가 간호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청소년 집단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약물남용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Park, Eun & Jeong, 1999, Kim, Kim, Kong, Kim & Seo, 1999, Choi, 1999, Chung & Kim, 2000),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간호 할 수 있는 자기간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Denyse, 1981).

청소년시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확립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로는, Kim 등(1998)은 우울과 자아존중감간에 역상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가 있었다. Chung(1988)은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의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적응과 순상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자기간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연구로 그 영향변수로는 건강통제위, 가족지지, 지식정도, 스트레스, 우울 등간의 관계를 밝히는 정도였고, 자아존중감이나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특히 자기간호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Song(1984)의 연구결과, 폐결핵환자에게 건강통제위성격이 내적성향이 높을수록 자기간호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Park(1985)은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건강통제위성격이 내적성향일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간호행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간의 상관성

* 본 연구는 2000년도 한림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투고일 2001년 8월 27일 심사회의일 2001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2002년 3월 20일

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반면에, Sim(1994)은 학령기 및 청소년기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가간호정도는 높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Choi(1992)의 연구에서도 만성질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가간호정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가간호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연구는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보이며 거의 모든 연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간의 관계 규명 뿐 아니라, 환자가 아닌 청소년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 자가간호역량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지각한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즉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적 지각은 건강증진행위의 중요한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Pender 등(1990)은 지각한 건강상태와 건강증진행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나, 자가간호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연구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각한 건강상태가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주요예측인자임을 밝혔으나(Duffy, 1993), 자가간호간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가간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앞으로 청소년 건강관리나 건강증진을 위한 자가간호측면에서 간호중재를 개발하게 될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확인한다.
- 3) 청소년의 자가간호 역량 정도를 확인한다.
- 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역량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5) 청소년의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가간호역량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2. 용어 정의

1) 청소년

발달 특성상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13세이상 18세 이하의 중·고생을 의미한다.

2) 지각한 건강상태

인간이 안녕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Health self-rating scale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Samuel, 1977)으로,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4) 자가간호역량

자가간호를 수행하는 데 작용하는 학습된 인간의 복합적인 힘과 능력으로 조사, 판단과 결정, 산출작용하는 능력이다(Orem, 1985). 본 연구에서는 Denyes (1981)의 자가간호역량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은 편의 표출 방법으로 1999년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2000년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3개 지역, 즉 서울, 경기도,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83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학교별로 양호교사의 도움을 얻어 대상자로 하여금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817명이며 나머지 13명의 자료는 응답내용에 충실하지 않은 자료로서 자료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가간호역량 및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자료수집하고 자료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각한 건강상태 :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하는 도구로 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개발한 Health and Activity Survey중 Health self-rating scale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된 3점 척도이다. 최저 4점에서 최고 12점의 범위를 나타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평가하는 건강상태가 좋음을 나타낸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1992)의 노인대상연구에서는 α -.62, Kim & Park(1997)의 노인대상 연구에서는, α -.79이었으며 본 연구결과는 α -.68이었다.

2) 자아존중감 : 이 도구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여 Jeon(1974)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임을 나타낸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α -.85, 본 연구결과 신뢰도는 α -.73이었다.

3) 자가간호역량 : Denyes(1981)이 개발한 Self-care agency assessment questionnaire로 총 35문항이었으나 Jang(2000)의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사전연구를 통해 25문항으로 수정되었다. 하위영역으로는 건강에 대한 감정, 자아강화, 건강에 대한 관심, 일반적 건강 지식, 구체적 건강지식으로 구성되어 7점척도로 25점에서 17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역량이 높은 것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 신뢰도는 α -.91이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AS PC+ version 6.10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분석의 목적에 따라,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각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역량의 차이검정은 ANOVA로 하였으며, 사후결과 분석을 위해 Duncan방법을 이용하였다.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가간호역량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자가간호역량을 예측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청소년이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가간호역량 정도

<Table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817			
characteristics	Item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395	48.3
	female	422	51.7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400	49.0
	high school	417	51.1
grade	first	292	35.7
	second	484	59.2
	third	41	5.1
sibling number	<1person	573	70.1
	>2person	244	29.9
sibling order	first	408	49.9
	no first	409	50.1
type of family	grand family	102	12.5
	nuclear family	698	85.4
	other	17	2.1
religion	Buddhism	175	21.4
	christianity	289	35.4
	catholicism	77	9.4
	none	265	32.4
	other	11	1.3
monthly pocket money (won)	less than 30,000	454	55.6
	30,000 more	363	44.4
height(cm)	131-149	30	3.7
	150-159	202	24.7
	160-169	336	41.1
	170 more	249	30.5
weight(kg)	30-39	40	4.9
	40-49	273	33.4
	50-59	294	36.0
	60-69	155	19.0
	70 more	55	6.7
experience of illness	having experience	367	44.9
	no experience	450	55.1
experience of admission	yes	264	32.3
	no	553	67.7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items on Self esteem and Self care agency among adolescents N=817

self esteem		self-care agency	
Items	Mean±S.D	subfactors	Mean±S.D
1. Value	2.91±0.79	feeling to health	4.15±1.00
2. quality	2.63±0.77	ego strength	4.06±1.16
3. success	2.97±0.86	attention to health	3.87±1.00
4. capability	2.96±0.71	general health knowledge	3.56±1.32
5. confidence	2.71±0.88	specific health knowledge	3.20±0.99
6. positive attitude	2.83±0.88		
7. satisfaction	2.64±0.94		
8. respect	2.00±0.83		
9. benefit	2.85±0.91		
10. morality	2.76±0.88		
	2.73±0.46		3.99±0.84
total	27.27±4.64		99.64±21.02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소년이 보고한 자신의 건강상태는 총 평균 8.75(SD=1.72)점으로 이는 각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2.19(SD=0.43)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는 1점과 3점 사이의 중간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와 자가간호역량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정도는 총 평균 27.27(SD=4.64)점으로 이는 각 문항에 대해서 평균 2.73(SD=0.46)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는 1점과 4점 사이의 중간 정도를 나타낸다. 이중 가장 낮은 문항은 존경이었으며, 가장 높은 문항은 성공에 대한 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 자가간호 역량 정도는 총 평균 99.64(SD=21.02)점으로 이는 각 문항에 대해서 평균 3.99(SD=0.84)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는 1점과 7점 사이의 중간 정도를 나타낸다. 가장 높은 하위영역은 건강에 대한 감정이었고, 가장 낮은 하위영역은 구체적 건강 지식이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역량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t=28.65, p<0.0001), 학년(F=3.79, p<0.02), 용돈(t=5.72, p<0.02), 키(F=9.82, p<0.0001)였다.

성별에서 남학생의 자가간호역량 정도가 높았는데 남학생군과 여학생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년별로 2학년의 자가간호역량 정도가 가장 높았고, Duncan 검정으로 사후분석결과, 2학년, 1학년, 3학년 순이었다. 용돈 정도는 3만원 이상인 학생들의 자가간호역량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용돈이 3만원 미만인 학생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키에 따른 자가간호역량 정도는 170cm 이상인 군이 가장 높았고 Duncan 검정으로 사후분석결과, 170cm 이상인군, 160-169cm 군과 150-159cm군, 131-149cm군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 care agency among adolescents

characteristics	Item	frequency	Mean	F or t	p	Duncan
gender	male	395	103.65	28.65	0.0001	
	female	422	95.9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400	98.76	1.39	0.24	
	high school	417	100.49			
grade	first	292	97.99	3.79	0.02	AB
	second	484	101.14			
	third	41	93.71			
sibling number	<1person	573	99.79	0.10	0.75	
	>2person	244	99.29			

<Table 3>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 care agency among adolescents(continued)

characteristics	Item	frequency	Mean	F or t	p	Duncan
sibling order	first	408	100.20	0.59	0.45	
	no first	409	99.09			
type of family	grand family	102	101.54	1.26	0.28	
	nuclear family	698	99.22			
	other	17	105.71			
religion	Buddhism	175	100.54	1.09	0.36	
	christianity	289	100.45			
	catholicism	77	98.87			
	none	265	98.03			
	other	11	108.46			
monthly pocket money (won)	less than 30,000	454	98.08	5.72	0.02	
	30,000 more	363	101.61			
height(cm)	131-149	30	91.30	9.82	0.0001	C
	150-159	202	96.54			BC
	160-169	336	98.11			B
	170 more	249	105.24			A
weight(Kg)	30-39	40	94.93	1.66	0.16	
	40-49	273	97.81			
	50-59	294	100.76			
	60-69	155	101.81			
	70 more	55	100.11			
experience of illness	having experience	367	99.34	0.14	0.71	
	no experience	450	99.89			
experience of admission	yes	264	99.78	0.02	0.90	
	no	553	99.58			

4.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가간호역량간의 관계

본 연구의 결과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가간호역량간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각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본 바, 지각한 건강상태와 자가간호역량간의 관계는 $r=0.24(p<0.001)$ 로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자가간호역량간의 관계는 $r=0.36(p<0.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지각한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도 $r=0.27(p<0.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계를 나타내었다.

5. 자가간호역량의 영향요인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으로 15%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외에 키, 건강지각, 한달 용돈, 성별을 추가하면 전체적으로 21%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6. 추가분석

자아존중감과 지각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에 가장 영향을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N=817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steem
perceived health status		
self esteem	0.27*	
self care agency	0.24*	0.36*

* $p<0.0001$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on Self care agency

variable	R ²	Cum. R ²	β	F	p
Self esteem	.15	.15	1.59	146.33	0.0001
height	.02	.18	1.61	25.86	0.0001
perceived health	.01	.19	-3.44	16.71	0.0001
monthly pocket money	.004	.19	0.73	4.89	0.0272
gender	.004	.21	0.24	4.53	0.0337

<Table 6>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on Self esteem

variable	R ²	Cum. R ²	β	F	p
Self care agency	.15	.15	0.07	146.33	0.0001
perceived health	.04	.19	0.53	39.36	0.0001
grade	.004	.20	-0.48	3.85	0.05

<Table 7>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on perceived health status

variable	R ²	Cum. R ²	β	F	p
self esteem	.08	.08	0.08	72.77	0.0001
experience of illness	.04	.12	0.53	35.63	0.0001
self care agency	.02	.14	-0.48	19.91	0.0001

을 미치는 요인은 자가간호역량으로 15%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외에 지각한 건강상태와 학년을 추가하면 약 20%의 설명력을 보였다<Table 6>.

지각한 건강상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8%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외에 질병경험 여부와 자가간호역량을 추가하면 14%의 설명력을 보였다<table7>.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자신의 건강상태는 중 정도이었다. 이는 Kim(1992)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 점수보다 높은 점수이었다. 이는 아직 청소년이므로 자신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도 중 정도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혈액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Seo(1990)의 연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1995) 연구에서는 본 연구보다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환자나 노인보다도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성교육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킬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간호 중재 방안이 요구 된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가간호역량정도는 중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Kim(1996)의 여성노인 자가간호역량을 조사한 결과, 중정도의 자가간호 역량을 나타내었다는 보고, Lee(1995)의 노인의 중정도 자가간호 수행정도와 일치한다.

하부영역별로 건강에 대한 감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자아강화, 건강에 대한 관심, 일반적 건강지식, 구체적 건강지식으로 나타나 건강지식에 대한 영역이 제일 낮았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지식정도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이므로 교육과정 내에 일반적 건강지식뿐만 아니라 구체적 건강지식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건강 습관을 확고히 하기 위한 간호 중재 방안이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 학년, 용돈, 키였다. 비록 자가간호역량과 자가간호 행위 실천이나 이행은 그 개념이 다르기는 하나, 자가간호역량이 높을수록 자가간호실천이 높았다는 연구보고에 의하면(Lee, 1997; Slusher, 1999; Stonebraker, 1991) 다음의 연구결과들은 자가간호역량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있어서는 Kim, E.H(1997)의 연구결과에서 위장관계 암수술환자의 자가간호역량을 연구한 결과,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보다 자가간호역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1997)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가

간호실천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Han(1988)의 연구에서도 결장루보유자의 자가간호 상태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1995)의 연구결과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자가간호를 잘하였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남녀의 어떠한 특성이 자가간호역량 정도나 상태, 이행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원인규명의 연구가 필요하며, 각 성별에 따른 자가간호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Choi(1988)은 고혈압환자의 자가간호에 대한 연구결과 여자가 자가간호행위 이행을 잘 한다는 보고를 한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남녀간의 자가간호 차이에 대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용돈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이 자가간호역량이 높았는데, 이는 Lee(1995)의 연구결과 용돈이 많은 노인집단이 자가간호수행점수가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외에 키나 학년에 따른 자가간호역량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Canty(1993)의 연구에서 연령, 성별, 학년, 출생순서, 경제적 수입이 자가간호역량에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는 결과를 통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결과인지에 대한 규명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과 자가간호역량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가간호역량, 두 변수간에 유의한 순상관계를 나타내었다.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1998)의 연구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가간호역량 정도간에는 중등도의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Sim(1994)의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가간호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Lee(199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가간호역량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지만,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이외에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의 변수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Oh(2000)는 자아존중감 증진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가간호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 프로그램이 자가간호능력을 증가시켰다고 하므로, 앞으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증진 간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가간호역량을 증가시키는 간호중재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자가간호역량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21%정도 이므로, 이외에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특히 건강통제위, 삶의 질, 건강증진행위, 자가효능감 등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경로분석과 같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Canty(2001)는 희망이 자가간호역량의 20.8%를 설명하나, 생활변화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한 최근보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외에 건강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시 자율성은 자가간호역량의 한 부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Dickey & Deatricks, 2000),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과 자가간호 역량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자가간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충청지역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817명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여 1999년 8월 16일부터 1999년 8월 28일까지 그리고 2000년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지각된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Health self-rating scale로 측정하였고 자가간호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Denyes(1981)가 개발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Self-Care Agency Assessment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C+ 6.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총 평균이 8.75(SD-1.72), 자아존중감정도는 27.27(SD-4.64), 자가간호역량 정도는 99.64(SD-21.02)점으로 중정도 상태를 나타내었다. 특히 자가간호역량 하부영역별로 건강에 대한 감정이 가장 높았고, 자아강화, 건강에 대한 관심, 일반적 건강지식, 구체적 건강지식 순으로 나타나 건강지식에 대한 것이 제일 낮았다. 그러므로 건강지식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시기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

요성을 나타내어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건강교육이나 건강습관을 확고히 하기 위한 실천적 간호중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역량의 차이는 성별, 학년, 용돈, 키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가간호역량이 높았는데 이에 대한 그 원인 규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용돈, 키가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자가간호역량의 차이를 보이게 하는지에 대한 추후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과 자가간호역량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자가간호역량간의 관계,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가간호역량과의 관계순이었다. 그러나 그 관계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15%를 설명할 수 있었고, 이외에 키, 건강지각, 한달 용돈, 성별을 추가하면 전체적으로 21%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간호실무측면에서 평생 건강관리체계 속에서 청소년 시기의 건강관리를 위한 자가간호의 관련 변수인,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약물남용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러한 변수들을 사전에 확인해야하며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2. 간호교육 측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할 때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3. 건강증진 측면에서 한국 청소년의 여러 변수들을 확인하여 Pender의 건강증진모델(1996)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의 자가간호 역량정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그 경로모형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여러 변수 중 청소년의 희망이나 자율성에 대한 변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Canty, J. L. (1993). *An investigation of life change events, hope and self-care agency in inner city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UMI.

Canty-Mitchell, J. (2001). Life change events, hope, and self-care agency in inner-city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4(1), 18-31.

Chung, S. J. (1988). *The self-esteem and adaptation of high school female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KyungPook University of Korea, DaeGu.

Chung, H. K., Kim, K. H. (2000). The perception of teenagers on the bully-with the subject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0(1), 137-147.

Choi, A. S. (1988). *Self-determination of health and self-care behavior of clients with hypertens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Choi, G. S. (1992). *The study of self-care and self-concept among chronic arthritis pati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Choi, S. Y. (1999). The study on violence status in high school-based on one area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9(4), 870-879.

Denyes, M. J. (1981). *Development of instrument to measure self-care agency in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UMI.

Dickey, S. B. and Deatrck, J. (2000). Autonomy and decision making for health promotion in adolescents. *Pediatric Nursing*, 26(5), 461-7, 481-2.

Duffy, M. E. (1993). Determinant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s in older persons. *IMAGE*, 25(1), 23-28.

Han, A. K.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are knowledge and status among colostomy pati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Jang, H. J. (2000). *Psychometric evaluation of self-care agency scale for Korean*

- adolescents: a transcultural repl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6th international self-care deficit nursing theory conference. Bangkok, Thailand.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Journal*, 11, 107-129.
- Kim, E. H. (1997).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elf-care agen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in gastrointestinal cancer patients who had an opera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H. K.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elf-care agency among the hospitalized old pati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of Korea, Busan.
- Kim, H. J., Park, H. S. (1997). Determinants of health-promoting behavior in the elderly. *J Korean Fund Nurs*, 4(2), 283-300
- Kim, M. S. (1997). Health promotion among adolescents. *Korean Nurses*, 36(3), 6-15.
- Kim, S. A., Kim, S. Y. J., Kong, S. S., Kim, M. A., Seo, M. A. (1998). Social behavior, self-esteem, social skill and depress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7(2), 273-282.
- Kim, S. Y. (1992). *Relationships between older person's conceptualizations of time and health*.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S. Y. J., Kim, S. A., Kong, S. S., Kim, M. A., Seo, M. A. (1999). The effects of prevention programs on drug use in Korean adolescents. *J Korean Acad Nurs*, 29(1), 150-160.
- Kim, T. Y. (1996). *The self care agenc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female elderly*.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H. L. (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elf-care practices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K. S.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are agency and self-care practice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of Korea, KwangJu.
- Lee, M. H. (1988). *The study on self-esteem and anxiety of spinal cord injury patients during hospitaliza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Oh, E. J. (2000). *The effect of self-esteem promotion program influencing self-esteem and self-care ability among the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of Korea, KwangJu.
- Orem, D. E. (1985). *Nursing concepts of practice(3rd)*. New York: McGraw Hill.
- Park, C. S., Eun, C. Y., Jeong, M. Y. (1999).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and preventive strategies of adolescent drug abuse-the center of Chun Nam area. *J Korean Acad Nurs*, 29(1), 127-138
- Park, M. H. (1985).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health locus of control, self-esteem, and self-care behavior among hepatitis pati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of Korea, GwangJu.
- Pender, N. J., Walker, S. N., Sechrist, K. R., & Frankstromberg, M. (1990). Predicting health promoting life style in the workplace. *Nursing Research*, 39(6), 326-332.
- Samuel, S. C. (1977). *Inhancing self-concept in early childhood*.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33-36.
- Seo, I. S. (1990). *Hopeless and self-esteem of chronic renal failure patients that are treating by hemodialysi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Song, A. R. (1984). *Th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health locus of control, self-esteem and self-care behavior focused on T.B pati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Sim, H. O. (1994).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elf care of school aged and adolescents with diabetes mellitu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Slusher, I. L. (1999). Self-care agency and self-care practice of adolescents. *Issue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22(1), 49-58.

Stonebraker, D. H.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are agency, self-care, and health in the pregnant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UMI.

- Abstract -

The Correlational Analysis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steem, and Self-Care Agencies among Adolescents*

Jang, Hee-Jung** · Shin, Yun-Hee***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elf-esteem, and self-care agencies for promoting self care among Korean adolescents.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817 adolescents in schools located in Seoul, Kyungki-do, and Chuncheon from Sept, 16th to Sept, 28th, 1999, and from Mar 10th to Mar 25th, 2000.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Health Self-Rating Scale,

Self-Care Agency Assessment Questionnaire (Denyes, 1981), the Self-Esteem Questionnaire (Rosenberg, 1971).

Result:

- 1) The mean perceived health status among Korean adolescents was 8.75 (SD-1.72)
- 2) The mean self-esteem was 27.27 (SD-4.64).
- 3) The mean self-care agency was 99.64 (SD-21.02) and the average self-care agency score was 3.99 (SD-0.84). In the subcategories, the highest degree was feelings towards health (4.15), followed by ego strength (4.06), attending to health (3.87), general health knowledge (3.56), and the lowest degree was specific health knowledge (3.20)
- 4)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emographic factors and self-care agencies, especially, gender (t-28.65), grade (F-3.79), pocket money (t-5.72), and height (F-9.82)
- 5) The statistic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steem, and self-care agencie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 6) Self-care agencies among adolescents was the highest factor predicting self-esteem (15%).

Conclu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steem, and self-care agencies reveal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adolescents. Therefore, nursing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needs to develop self-esteem programs to increase self-care agencies

Key words : Adolescent, Health status, Self-esteem, Self-car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Hallym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